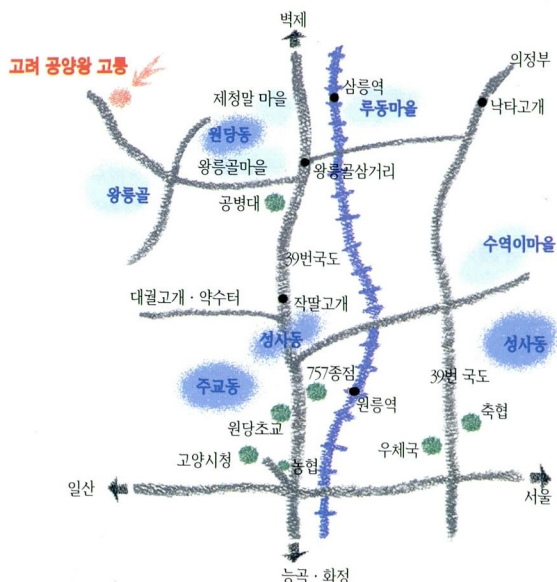


● 왜소하고 초라함이 멸망한 고려의 모습을 보는듯 ●

고려 공양왕릉

(高麗 恭讓王陵)

- 지정번호 (指定番號): 사적(史蹟) 제 191호
- 지정년월일 (指定年月日): 1970. 2. 28.
- 시 대 (時 代): 조선시대(朝鮮時代)
- 소 재 지 (所在地): 원당동(元堂洞)
- 소 유 자 (所有者): 국유(國有)
- 관 리 자 (管理者): 이흥영
- 규 모 (規 模):
- 재 료 (材 料): 화강암(花崗岩) 및 토분(土墳)



교통편
 고양시청앞 → 85, 800, 82번 버스
 왕릉골 입구 하차 (약 7분 소요)
 걸어서 20여분 후에 도착 할 수 있다.



공양왕릉 왼쪽은 왕, 오른쪽은 왕비인 순비 노씨의 봉분으로 쌍릉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왕릉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34대 공양왕과 그의 비인 순비 노씨(順妃盧氏)의 능이다. 공양왕은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내세워 창왕(昌王)을 폐위시킨 이성계 일파(李成桂一派)에 의하여 옹립되었던만큼 그들 앞에서 바로 보좌(寶座)에 앉지 못하였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허위(虛位)

에 앉아 있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다. 공양왕은 재위 4년만에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폐위되어 원주로 쫓겨났고 공양군(恭讓君)으로 봉하여 간성군(杆城郡)에 두었다가 강원도 삼척에 옮겨 가 조선 태조 3년 그곳에서 50세로 돌아왔다.

그 뒤 태종 16년 공양왕으로 추봉하고 봉릉(封陵)하여 수호소(守護戶)를 두었다.

순비 노씨는 교하군인(交河郡人) 창성군(昌城君) 진(鎭)의 딸로 공양왕 원년 11월 순비가 되고 1남 3녀를 두었으나 나라가 망한 후 왕과 함께 쫓겨나 왕과 함께 돌아간 후에 이곳에 묻혔다.

능의 제도는 왕과 왕비를 쌍릉형식(雙陵形式: 왕과 왕비를 좌우에 나란히 배치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능 앞의 석물



왕릉능표 화강암으로 만든 조선시대 전기의 비석으로 공양왕릉임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石物)로는 비석 일좌(一座)씩과 상석(床石)이 놓여 있으며 양측에 석인(石人) 두 쌍이 서로 마주하여 세워져 있다. 능의 정면으로는 석수(石獸) 한 마리가 남아 있다. 석인은 모두 키가 1m 내외로 두종류가 있는데 능 앞쪽 석물은 더 작으며 특물(特物) 없이 공수(拱手)하고 있다. 그 앞쪽에 위치한 석물은 키가 좀 크고 홀(笏)을 쥐고 있다. 봉분 앞 상석 뒤에 서 있는 비석은 봉릉(封陵) 당초의 것으로 보이며 양릉 중간에 조선 때 세운 것으로 보이는 '고려공양왕고릉(高麗恭讓王高陵)'이라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석물의 양식과 수법은 고려의 여러 왕릉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왜소하고 소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장명등은 옥개(屋蓋)가 팔각인데 체석(體石)이 사각(四角)인 것으로 보아 체석만 후에 만들어 맞춘 것이 아닌가 한다. 장명등의 화창(火窓)은 두개이다. 석수 옆에 크기도 옥개석과 걸맞는 팔각(八角)의 화대석(火袋石)인 듯한 돌이 놓여 있는데 옛 장명등의 잔석(殘石)이 아닌가 여겨진다. 석수 역시 건원릉(健元陵)과 헌릉(獻陵)에서도 보이는 고려 석수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공양왕의 능은 이곳 고양시의 고릉 뿐 만 아니라 유배지이며 사사지(賜死地)로 알려진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江原道 三陟郡 近德面 宮村里)에도 있는데 이는 당시 어수선하며 위약했던 고려왕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석물 능 앞에 배치된 석수와 장명등. 좌우에 왕과 왕비의 능 표석이 있고 석수 옆으로 또 하나의 석물이 있다.



문인석, 무인석 고려시대에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문인석과 무인석. 왼쪽의 것은 문인석으로 넓고 두툼하며, 오른쪽 무인석은 길고 가냘픈 모습이다.